

Saussure의 언어이론과 이분법

金允漢
(언어학과 교수)

1. Saussure 언어이론의 정립배경

20세기 초기에 사회학자 E. Durkheim, 심리학자 S. Freud와 같이 Saussure는 인간 행위에 관한 새로운 연구방법을 정립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그들은 개체적이고 구체적인 개개의 사물에 관한 본질 그 자체를 실증적으로 추구하는 경험주의나 실증주의적 역사주의 시대와 같이 자연과학적 방법만으로 인간이나 인간의 제도 또는 문화적 유산을 충분히 해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개별적 사건의 역사적 인과관계만을 추구한다면 인간행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인간행위는 일반사회적 구조내에서 고유한 의미를 내포하는 관계 즉 기능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사회적 사실은 제도나 가치의 체계로 취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계관의 변화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서부유럽 근대사상사의 패러다임의 구조적 변화에서 유래되었다. A. Whitehead가 언급한 바와 같이 19세기의 물질주의라고 칭한 경험주의에서는 개별적 사물에 관한 존재론적 본질에 대한 고찰을 가장 중시 했지만 새로운 사상 체계에서는 상대성이론 즉 넓은 의미에서 사물간의 관계에 기초한 이론에 우위성을 둈다.

최근 Saussure에 관한 새로운 관심이 구조주의언어학은 물론이고 기호론과 구조주의를 정립하는 데 그가 크게 기여한 사실에 집중되고 있다. 그는 특히 언어와 인간정신 간의 긴밀한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인문과학의 새로운 연구모델 구성에 혁신적 변화를 야기시켰다. 예컨대 그는 문화현상을 기호체계

로 간주함으로써 언어학뿐만 아니라 인류학, 문학, 심리학, 예술 등의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는 새로운 언어학의 형식적 연구 모델을 통해서 외적으로 무질서하고 복잡다양하며 무관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어떤 일정한 관점에 따라서 체계적 방법으로 포착할 수 있는 형식성으로 인문과학 연구에 적용했다. E. Cassirer는 Saussure의 구조주의언어학 즉 이러한 이론 및 방법론적 혁신(패러다임의 교체)을 Galileo의 업적에 비유한 바 있다.

최근 은유적 사용에서 비롯된 구조에 관한 상이한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의하려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은 주지할 만한 사실이다. 언어에 관한 체계적 고찰은 언어의 규칙성을 추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며 구조의 개념이 모든 규칙적 형태를 의미한다면 구조주의는 언어 그 자체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Ducrot 1968, 16). 물론 구조주의언어학이 등장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Oestereicher (1979, 48~55)가 주장한 바와 같이 Th. Kuhn의 자연과학적 패러다임 교체의 개념은 언어학의 역사에서는 조건부의 적용만이 허용된다. 19세기는 일반적으로 언어의 표현 수단인 음성과 음성으로 구성된 어형변화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언어기능은 주로 문법학자들에 의해서 기술되었지만 그 당시 규범문법을 정밀과학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¹⁾

Paul(1968, 20)이 언어의 과학적 고찰방법은 역사적 방법외에는 없다고 주장한 사실만 보아도²⁾ 그 당시 언어의 공시적 기술에 관한 소홀함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해야 할 사실은 언어상태의 기술을 역사적 연구의 전제조건으로 간주했다는 점이다 (ibid. 23f.). 이러한 사실은 그가 개별언어의 기술에 있어서 일종의 내재주의Immanentismus, 즉 후에 전형적인 구조주의적 고찰방법으로 간주되는 연구방법을 천명했음을 뜻한다. 언어의 구조주의적 연구방법은 17세기, 특히 18세기³⁾ 언어의 전과학적 시대에도, 언어사를 면밀히 고찰한다면 그 이전에도 구조주의적 연구방법이 통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Albrecht 1988, 11f.).

20세기 초기에 구조주의언어학으로의 패러다임 교체의 가장 큰 원인은 실증주의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Saussure가 구조주의언어학의 창시자라는 것은 주지의

-
- 1) 그 당시 문법의 연구대상은 언어학의 연구대상으로는 부적합한 문장이었다. Schleicher는 언어학의 연구대상으로 문장어보다는 방언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 2) 1880년에 발행된 *Prinzipien der Sprachgeschichte*에는 이러한 그의 견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3) 언어학의 전과학적 시대에 관한 관심은 Chomsky의 *Cartesian Linguistics*(1966)를 통해서 획기적으로 고조되었다.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무에서 구조주의언어학을 창조한 것은 물론 아니다. Saussure 이전의 어떤 학파나 개인에 의해서 이미 표명된 여러 이론이나 견해 또는 암시를 그가 종합, 분석해서 그 결과를 시대적 사조에 맞게 체계화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그가 구조주의언어학을 정립하는 데 어느 이론의 영향을 받았는지 다음에 간략하게 사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⁴⁾

Cassirer(1945, 109)는 구조주의의 개념이 18세기에 프랑스 생물학자들 특히 G. Cuvier의 유기체개념에서 유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또한 유기체개념이 A. Schleicher에서와 같이 형식적 방법론상의 이해가 아니고 존재론적 이해로서 언어에 이전되었다면 그 개념은 자연주의와 신비주의의 독특한 혼합이라고 언급했다. 또 한편으로 신칸트주의자인 Cassirer는 어떤 확정된 개념적 전제조건의 도움없이 직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극명한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단순한 관념에 대해서 반박하고 1) 과학적 인식의 확립에서 구조에 관한 문제는 적어도 인과관계의 문제와 같은 정도로 중요하며, 2) 전자는 후자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Saussure의 언어이론이 19세기의 자연주의적이고 심리적 확신과 반실증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철학적-심리적 전통은 B. Balzano(1781~1848)에서 시작하여 F. Brentano(1838~1917)와 A. Marty(1847~1914)를 거쳐 E. Husserl(1859~1938)의 현상학에까지 이어지고 그 방계로서 Würzburg와 Berlin의 형태심리학⁵⁾을 형성했다. 이러한 전통을 존중하는 사상가들은 구체적 주체의 사고행위의 경험적 고찰에 관한 순수한 사고를 지양하고 그 당시 논리학과 수학에서 팽배했던 심리주의를 또한 부정했다(Albrecht 1988, 16). Husserl의 전체적 대상의 파악과 본질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을 구분하고 비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려는 현상학과 비엔나씨클의 논리적 분석은 Saussure의 구조주의언어학 정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⁶⁾ 현상학은 19세기 말 경에 실증주의의 역사적 학문관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한 비역사적 운동인데 Husserl⁷⁾에 따르면 1) 철학의 연구대상은 유일하고 직접적으로 주어진 현상으로 간주

4) 자세한 것은 Koerner(1973), Jäger(1975), Scheerer(1980, 120~151), Albrecht(1988, 8~23)를 참조하여라.

5) 형태심리학자들은 그들의 반자연주의보다는 반원자론적 연구방법 때문에 구조주의의 선구자로 인정된다. 그들은 실험을 통해서 인지의 본질적 대상은 일반적으로 개별적 사실이 아니고 사실의 복합체라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그 당시의 사변적 사고방식을 부정하는 실증주의자들을 감명시켰다.

6) 논리적 분석은 20세기 초기에 비엔나에서 시작되었고 B. Russel과 L. Wittgenstein은 이 학파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되는 의식의 현상이고, 2)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 의미를 가진 일종의 절대적 본질이며, 3) 철학의 연구관계는 피상적 현상의 세계 뒤에 존재하는 보편적 본질을 규명하는 데 있다(Amirova et al. 1975–Meier 1980, 473f.).

Doroszewski(1933)에 의하면 Saussure는 *Règles de la méthode sociologique*(1907)에서 사회 현상을 개인을 구속하는 외재적 집단 현상으로서 객관적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Durkheim의 사회학적 방법론의 영향을 받아 언어를 사회적 사실로 정의했으며 L. Walras의 *Éléments d'économie politique pure*(1874)에서 또한 영향을 받아 가치개념을 도입했다.⁸⁾ Schuhardt(1917)는 Cours의 서평에서 Saussure가 공시태와 통시태를 구분한 것은 Comte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Comte(*Système de politique positive*, Bd.2. 1852, 1)는 인간에 관한 탐구는 두 본질적 부분 즉 유기체의 본질적 특성에 관한 정적인 연구와 그 진화와 관련되는 동적인 연구로 양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oerner(1973, 270)의 분석에 의하면 이외에도 상태, 가치 등의 개념 역시 A. Comte에서 유래되었다. 물론 이러한 영향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Saussure가 19세기에 매우 큰 영향력이 있었던 Comte의 저서를 대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언어학과 언어철학 영역에서 Saussure에게 영향을 준 학자로는 우선적으로 W. v. Humboldt, W. Whitney, Paul, Baudoin de Courtney, Gabelentz 등을 들 수 있다. Humboldt는 엄밀한 의미에서 구조주의언어학뿐만 아니라 현대언어학의 개척자다. 그의 많은 저서 특히 *Über die Verschiedenheit des menschlichen Sprachbaues und ihrem Einfluss auf die geistige Entwicklung des Menschengeschlechtes*(1830~35)는 현대언어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⁹⁾ Jäger(1975, 6)는 Saussure의 언어이론이 해석학적-변증법적 언어철학의 중단되지 않은 전통과 연계되었음을 강조하고 이러한 전통을 Humboldt의 언어철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Saussure와 Humboldt의 영향관계를 인정했다.¹⁰⁾ Christmann(1974, 63)은 Gabelentz(1901)가 또한 Humboldt의 영향을 받았고 Gabelentz와 Saussure 언어이론의 기본원칙이 유사함을 들

7) Husserl 그의 이론의 논리적 양상을 가장 중시했다. Hildenbrandt(1972, 8f.)는 Saussure의 Cours와 Husserl의 현상학과의 직접적 연관관계를 강력히 시사했고 사회학에서 랑그-빠를 의 이분법을 주장했다.

8) Koerner(1973, 45-71)는 이러한 영향관계를 부인했지만 그 당시 사회학에서 이러한 개념이 통용되었음을 사실이다.

9) Comte에 따르면 1960년과 1976년 사이에만 Humboldt에 관한 160개의 논문이 집필되었다.

10) Saussure와 Humboldt의 연관관계는 Jäger 이전에 Mauro(1983), Lohmman(1967), Ramischvili (1970), Hildenbrandt(1972), Christmann(1972, 1974)에서 이미 논의되었다.

어 이들간의 다양한 관계를 입증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사실은 Saussure의 이론과 용어가 Gabelentz의 것보다 더 체계적으로 명확하며 Gabelentz의 이론과 용어가 Humboldt에서보다 더 체계적이고 정확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Christmann(1972, 245)이 제시한 Saussure의 이론과 Gabelentz의 이론간의 유사성은 다음과 같다:

- 1) 언어능력langage / 랑그 / 빠를의 세 구분
- 2) 통시태와 공시태의 대립적 구분
- 3) 체계개념
- 4) 어휘에 관한 체계적 개념
- 5) 사전과 문법의 구분을 부인한 사실
- 6) 음소에 관한 이론

Sljusareva(1974, 274)는 Humboldt와 Cours의 비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L. Hjelmslev에서 그 이론의 연속성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Sljusareva에 의하면 Humboldt의 아이디어와 Saussure의 이론간의 일치는 매우 일반적 성질의 것으로 반복이나 차용의 문제가 아니고 동일한 주제에 관한 후속적 발전이다. 물론 이러한 영향관계는 극명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확인된 사실은 아니며 이에 관해서 한층 더 정확하고 다각적 연구가 요구된다.

Whitney(1875, 1876)의 언어이론은 그 당시 유럽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또한 그의 저서도 많이 번역되었다. Saussure는 1894년에 Whitney에 관한 논문을 집필했는데 여기에서 그는 역사-비교언어학에서 일반이론 언어학으로의 전환을 시도한 Whitney를 극찬했으며 그를 존경한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¹¹⁾ Koerner(1973, 74ff.)는 L. Kukenheim, M. Leroy, G. Mounin 등의 논증을 Saussure와 Whitney 간의 영향 관계를 입증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고 반박하고 다음과 같이 일반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구체적 논거를 제시했다:

1) 언어가 사회제도라는 개념은 Whitney에서 유래되었지만 Saussure는 언어를 다른 사회제도와 명확히 구별함으로써 그가 의도하는 기호학적 의미에서 그 개념을 정확히 규정했다. 사회제도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연적 관계에 의해서 설정되

11) 이 논문은 미완성되었으며 Saussure의 생전에 출판되지 못했다. 또한 Saussure는 Cours에서 Whitney에 관해서 3번이나 강조해서 언급했다.

는 데 반해서 언어만은 사회적 유효성 즉 사회적 규약에 의해서 생성되었다.

2) 임의성의 개념 역시 Whitney가 공식화했지만 그는 현실과 기호 그 자체간의 외적 관계와 의미와 음파의 내적 관계를 명확히 차등화하지 않았다. Saussure는 Whitney가 “임의적”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 용어 “관습적”的 사용을 거부했다.

3) Whitney도 Saussure와 마찬가지로 개인과 사회간의 관계를 상호작용의 의미에서 규명했다. 따라서 언어와 언어변화는 사용여부를 결정하는 화자 개개인의 동의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회적 산물이다.

4) 물론 체계적이지는 아니지만 Saussure의 랑그-빠롤의 구분 역시 Whitney에서 발견된다. 이외에도 Whitney의 이론에는 개별언어와 언어체계의 개념적 구별뿐만 아니라 랑그와 언어능력*faculté du langage*의 구별 또한 내재한다(ibid. 87).

5) Saussure의 가치론, 체계개념, 영부호*signe zero*, 언어를 보존하거나 변화시키는 힘의 정의 등은 Whitney의 영향으로 구체화되었다.

Koerner(ibid. 92)는 위의 사실을 토대로 Whitney가 진정한 의미에서 Saussure의 선구자임을 단정했다. Koerner의 이러한 논거는 Whitney와 Saussure가 모두 다원주의적 언어관을 비판하고 그들의 언어이론을 정립했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었다. Koerner (1976, 700)에 따르면 Whitney가 처음으로 Schleicher적 학문의 패러다임 교체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Saussure가 이러한 패러다임 교체를 완성하여 언어연구에 새로운 관련 체계를 도입했다. Jäger(1975)는 Koerner의 이러한 주장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 Jäger에 의하면 그들의 이론은 용어상으로는 분명히 일치하지만 학문적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큰 차이점을 내포하고 있다. Saussure와 마찬가지로 Whitney도 Schleicher나 M. Müller의 자연과학적 유기체모델을 지향하고 언어의 특성을 사회적 제도 즉 인간 자유의사의 산물로 규정했다. 그러나 그들의 비판은 본질적으로 상반되는 관점에서 전개되었다. Whitney는 경험적 확증의 배후에서 비밀리에 작용하는 자연적 언어능력의 본질에 관한 사변적인 본질적 언표의 유기체개념을 확증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Schleicher가 가정한 인과적이고 결정론적으로 작용하는 규칙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Saussure는 Humboldt에서 유래된 유기체개념을 수용했다. 예컨대 Saussure의 이론만이 임의성의 원칙과 인간의 자유스런 행위에 기초한 기호를 창조하는 사회적 발화행위의 산물로서 Schleicher의 언어 유기체론과 대립된다. 다시 말해서 Saussure는 Schleicher적 유기체개념에서 Saussure의 특성인 주체성과 자유와 관련하여 언어본질

의 결정론적 환원을 추구했지만 Whitney는 과학적 확증szientifische Begründung 즉 자연철학적 사고의 결정론의 학문적 정화를 목적으로 했다(ibid. 241). 따라서 이러한 서로 상이한 학문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Whitney와 Saussure는 선구자와 완성자로 인정을 받는다. 양자는 사회제도의 개념과 의미를 서로 다르게 보았다. Whitney는 랑그의 개념을 언어 이전에 이미 그 체계가 마음 속에 내재하는 개개인의 고립된 발화행위의 총화로 간주했다. 반면에 Saussure는 임의성의 원칙에 의거해서 Whitney의 이러한 랑그개념을 부인하고 사회적 유효성을 언어의 체계적이고 의미함유적 객관성에서 우선적으로 생성되는 모든 기호창조적 행위의 산물로 이해했다. 이외에도 그들은 자유와 결정의 관계에 관한 문제에서도 일치된 견해를 가지지 않았다. Saussure에 의하면 객관적 언어사실은 주관적이고 자유로운 기호학적 행위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그는 결정론적 설명을 배제했다. 그러나 결정론적 설명은 Whitney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인간 행위의 자유는 부차적 현상이다. 결국 언어학은 Saussure에게는 정신과학인데 그 이유는 언어학의 연구대상이 역사적으로 객관화된 인간 주체성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Whitney의 견해는 언어학을 자연과학에 소속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후에 Saussure 가 짊은이문법학파와의 논쟁에서 취한 입장과 일치한다(ibid. 253f.).

Saussure가 구조주의 언어이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Whitney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는 사실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는 언어학자는 거의 없다. 주지해야 할 사실은 Saussure가 Whitney의 이론을 한층 더 구체적으로 체계화했다는 것보다는 그들이 서로 상이한 이론적 관점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견해가 옳다. 그래야만 왜 Saussure 가 비판한 그 당시의 언어이론에 Whitney의 이론도 포함시켰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Scheerer 1980, 150).

Paul의 *Prinzipien der Sprachgeschichte*(1880)는 짊은이문법학파의 경전이라고 불리는데 어떤 언어이론보다도 19세기 말경 유럽과 미국의 언어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Paul(1975, 39)에 의하면 아무리 간단한 역사적 사실이라도 직감이나 추리력없이는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없기 때문에 연구대상의 본질에 가장 적합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제외되어야 한다. 언어상태의 기술을 인정하고 비체계적이고 직감적인 전통언어학과는 대조적으로 언어의 체계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그가 현대언어학 이론정립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그는 낭만주의에서 유래된 언어 유기체설의 토대 위에서 언어를 가치체계로 보는 Saussure의 구조주의 이론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Saussure는 Paul의 자료중심적이고

부정확한 경험적 언어 연구방법과 언어사실에서 정확한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한 이론 부재현상에 관해서 비판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확고한 이론적 바탕 위에서 공시언어학의 우위성을 주장했다.¹²⁾ 예를 들면 Paul은 경험적 관점에서 언어습관은 개인적 발화에 관한 연구와 그 비교에서 언어진다고 주장한 반면 Saussure는 한층 더 논리적 방법으로 랑그의 존재를 가정하고 개인적 언어행위를 경시했다. 그러나 Saussure가 Paul에게서 랑그와 빠를 외에도 공시태와 통시태, 심리적 연합개념 등 구조주의언어학의 중요한 이론을 답습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Koerner 1972, 290f.). 다시 말해서 Paul은 그의 *Prinzipien der Sprachgeschichte*에서 현대언어학의 핵심적 이론에 관해서 이미 논술했거나 적어도 암시적으로 언급했다(Cherubim 1973, 316~19). 그의 언어이론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가 정립한 다른 이론을 도외시하고 그가 주장한 역사성에 관한 모순성만을 강조했을 뿐이다.¹³⁾ 예컨대 그가 기술문법과 언어사를 구분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두 언어단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언어상태의 기술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언어변화에 관한 연구를 언어학의 기본원칙으로 간주한 Paul은 이러한 언어상태의 기술이 역사언어학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Koerner(1973, 180ff.)는 기술문법과 언어사의 구별, 개인언어Rede와 언어공동체의 구별과 언어 상태의 개념을 Paul 언어이론의 세 주요 양상이라고 지적하고 언어라는 개념하에서 이러한 사실을 구조적이라고 칭했다. 따라서 Paul의 이론이 Saussure의 Cours와 연관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Paul이 Saussure의 선구자라면 당연히 현대 구조주의언어학의 선봉자도 되어야 한다. Koerner의 분석에 의하면 현대 구조주의언어학의 정립은 Saussure가 Paul 이론의 내적 모순성에 과민반응을 보이고 통시태와 개인언어의 존재를 무시함과 동시에 공시태와 사회적 언어공동체를 구체화한 사실에 기인한 듯한 느낌을 준다. Jäger(1975, 155)는 Koerner가 Paul의 언어변화 이론을 검증하지 않고 그의 공시적 이론만을 무비판적으로 취급했다고 반박했다. Paul의 역사이론이 Saussure 언어이론의 정신사적 전제조건을 규명하는 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비난은 방법론적인 것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Saussure의 이론

12) 1908년에 Saussure는 Paul의 *Prinzipien der Sprachgeschichte*를 여러 언어현상만을 나열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Saussure의 평가는 Paul의 경험적 고찰방법의 미비함과 언어사실에서 결론을 이끌어 내고자 한 그의 시도에 대한 실패를 비판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는 있지만 올바른 평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13) Paul(1975, 20)은 언어의 역사적 고찰 방법 외에는 다른 과학적 연구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은 Paul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Saussure는 Paul의 이론을 접했을 뿐만 아니라 1909년 A. Riedlinger와의 대담에서 공시적 언어연구에 관한 Paul과 그 당시 여러 언어학자들의 이론을 논박했다(Godel 1969, 29).

J. Baudoin de Courtenay는 언어의 정적인 분석 즉 공시적 언어상태 요소간의 관계의 중요성을 인지했으며 Paul과 Saussure와도 교신을 했다. Baudoin de Courtenay는 언어의 메커니즘을 발견하고 언어체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역사-비교 방법보다 정적인 방법이 더 효과적임을 강조했다. 그 이유는 언어체계가 언어요소의 확고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예컨대 그는 언어연구에서 정적인 (공시적) 면과 동적인 (통시적) 면을 구분했고¹⁴⁾ 또한 기술적 방법도 적용했다.

1923년 Petrograd에서 개최된 언어학 세미나에서 Cours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었는데 세미나 참석자들은 Kazan학파의 창시자인 Baudoin de Courtenay의 이론과 Cours가 많은 점에서 분명히 일치됨을 발견했다(Sljudareva 1974, 754f.; Jakobson 1960/71, 231). 결과적으로 Baudoin de Courtenay의 선재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와 Saussure의 영향관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N. Trubetzkoy는 영향관계를 부인했고 Jakobson이 그 관계를 인정했다. Stankiewics(1976, 4)는 Saussure가 Baudoin de Courtenay의 이론을 거의 그대로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1891년에 Saussure는 Baudoin de Courtenay와 M. Kruszewski¹⁵⁾가 극소수의 진보적 이론가에 속한다고 했으나 1908년에는 Baudoin de Courtenay의 이론의 효과와 영향이 미세하다고 평가했다.

Koerner는 공시적 연구에 대한 편중성과 체계와 실현의 구별(Baudoin de Courtenay의 이론에서는 잠재적이지만) 그리고 음소개념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주의적 기준 등에서 양자의 이론적 근거의 동일성이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oerner(1973, 140)는 또 한편으로 그들의 서로 상이하지만 보충적 작업방식을 강조했다.

14) Baudoin de Courtenay는 언어의 정적인 면은 존재하지 않으며 언어의 정적인 상태는 동적인 상태의 특수한 경우라고 주장했다.

15) Kruszewski는 Baudoin de Courtenay와 더불어 Kazan학파의 대표적 학자다. Kazan학파는 철학, 논리학과 수학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학문적 추상화를 추구했다. Kruszewski에 의하면 언어학의 과제는 언어발전의 자연적 발전과정을 규정하는 데 즉 언어의 형식적이고 기능적 면의 발전법칙을 발견하는 데 있다. Jakobson은 그를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언어이론가중의 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으며 Kruszewski가 Saussure의 Mémoire(1878)의 음소개념 이외에도 언어의 사회적 특성과 통합적 및 계열적 관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Koerner는 일반적, 철학적 관점에서 이들 사이에는 본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Kruszewski는 경험적이고 귀납적 방법으로 그의 이론을 정립했고 언어를 기호체계로 이해하지 않고 언어체계를 규명하려고 했다.

Baudoin de Courtenay는 현지조사와 음소기술에 관심을 가진 경험자인 반면에¹⁶⁾ Saussure는 빠른의 언어학을 인정은 했지만 경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Baudoin de Courtenay는 짊은이문법학파에 대항해서 독자적이고 앞질러 가는 언어학자이며 정적인 언어 고찰방법과 진화적 방법의 변증법적 상호 연관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언어이론을 정립했다. 따라서 그의 이론은 공시적 언어고찰에 일방적으로 우위성을 부여한 Saussure의 이론과는 다르다(Häusler 1976, 531). Baudoin de Courtenay의 경우 분명히 이데올로기상의 이유로 여러 상이한 비판을 받게 되는데 새로운 비교를 통해서 합리적 평가를 할 수 있다면 매우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또 한편 Saussure의 철학적 견해의 모든 절충주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구조주의언어학에서 고의적이고 오인된 Saussure의 의미와 함께 이러한 절충주의를 자발적 유물론자 Baudoin de courtenay와 그의 변증법적-유물론적 언어관의 의미에 진보적이고 합리적 이론의 일반적 재평가를 할 기회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언어학의 역사기술 편찬가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Sljusareva(1974)는 Baudoin de Courtenay 와 Saussure는 영향을 주고 받았지만 그 영향은 두 학자간의 일관되고 통일적인 것은 아니였으며 그들 모두가 상대방의 연구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결론지었다.

Gabelentz(1891)에 관한 연구는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활기띠기 시작했으며 Rensch(1966, 1967)가 Gabelentz와 Saussure의 영향관계에 관해서 처음으로 언급했다.¹⁷⁾ 이러한 영향 관계는 Coseriu(1969)의 상세하고 부분적인 Sprachwissenschaft와 Cours의 총괄적인 텍스트비교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입증되었다. Gabelentz는 언어능력Sprachvermögen, 개별어Einzelsprache와 언어Rede의 3종 구별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개별어의 공시적 연구와 계보적-역사적 연구를 명확히 구별했다. Gabelentz의 이론은 다음에서와 같이 Cours와 일치한다(Scheerer 1980, 134f.):

- 1) 공시태는 화자의 의식과 연관되어 있다.
- 2) 상태의 기술은 역사적 사실과 구별된다.
- 3) 통시태와 공시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16) Koerner(1975, 760ff.)는 Baudoin de Courtenay의 언어이론을 Schleicher의 견해와 유사하다고 보았으나 Häusler(1968, 1976)는 Baudoin de Courtenay의 이론이 Schleicher의 생물학주의와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17) 1960년대 중반 경부터 역사언어학에 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aul에 관한 연구는 부진상태다. 팔복할만한 사실은 Paul 대신에 Gabelentz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 4) 공시태는 체계적 연관관계에 관한 고찰인 반면에 통시태는 개별적 사실의 규명에 역점을 둔다.
- 5) 통시태를 음성학과 대등하게 취급했다.
- 6) 내적 언어학과 외적 언어학의 구별
- 7) 언어개념과 음성학, 문법 및 어휘론의 영역에 관한 개념에서의 상응성

물론 Saussure 이전에 다른 많은 언어학자들도 위에서 언급된 아이디어나 주제중에서 두서너 개의 동일한 주제에 관해서 언급한 바가 있다. 그러나 동일한 저자에게서 모두가 동시에 발견되는 경우는 없었다(Coseriu 1967, 97). Saussure는 정보에 민감했고 또 그의 서재에 Gabelentz의 *Die Sprachwissenschaft*(1891)의 초판이 소장되어 있다 (Gambarara 1972, 339)는 사실로 보아 영향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Coseriu나 Gambarara 등과는 달리 Koerner(1973, 176ff.)는 다수의 비교가 너무 퍼상적이라고 지적했다. 명칭상으로 유사한 구별, 예컨대 Gabelentz의 개별어의 연구와 역사적 연구의 구별은 실제로는 Saussure의 의도와는 상반된다. Saussure에 의해서 정의된 용어로 이해되는 몇 개의 개념은 Gabelentz에게는 다만 일반적 일상용어일 뿐이다. 이외에도 언어학의 연구대상에 관한 언명도 상호간 상응하지 않는다. Gabelentz가 언어능력을 언어학의 우선적 연구대상으로 취급하면서도 그는 일종의 언어수행모델을 추구했다(Koerner 1975, 792). 말하자면 Gabelentz는 Saussure가 중요시하지 않은 빠롤의 현상을 우선적으로 취급했다. Coseriu에 대한 Koerner의 주된 반박은 Gabelentz의 견해를 Coseriu 자신의 언어이론상의 개념으로 해석했다는 점이다. 현재 구조주의언어학의 관점에서보다는 Humboldt나 젊은이문법학파의 수준에서 Gabelentz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Koerner(1973, 188)도 결국 영향관계를 강력하게 부인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그는 Saussure가 Gabelentz의 저서를 참조했지만 그 내용에 관해서는 실망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ibid. 181).

Koerner가 Gabelentz의 영향을 부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Zwirner(1971, 248) 역시 Gabelentz를 Saussure의 선구자라고 단순히 평가하는 것에 반대했다. 영향관계에 관한 평가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의 유사성을 인정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다. 예컨대 어떤 학자는 Gabelentz와 Durkheim이 Saussure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고(Coseriu) 다른 학자는 Durkheim의 영향은 인정하지만 Gabelentz의 영향은 부인한다. 또 다른 학자는 Gabelentz와 Durkheim을 부인하지만 Whitney와 Paul의 영향을 인정한다(Koerner). 이외에도 어떤 학자는 제한적으

로 Gabelentz를 인정하고 Humboldt의 영향을 중요시한다(Christmann, Jäger). Scheerer(1980, 151)는 선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서 19세기 Schleicher 이후 언어학의 진화이론에 관한 정확한 분석을 들었다. Saussure의 개별적 아이디어, 정리, 공식 등을 어느 확정된 이론이나 아이디어에서 유도해 내거나 환원하기를 원한다면 서양 언어학과 철학의 모든 전통에서 영향관계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구는 효과가 없다. Gödel이나 Mauro가 경고했듯이 이러한 평가는 그 당시 개별적인 유사한 이론과의 비교를 통해서 Saussure의 독창성을 세부적 사항에서 가 아니라 그의 미완성된 기호학이론에서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2. Saussure의 이분법적 언어 연구방법

Saussure 언어 연구방법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이분법Dichotomie과 이율배반Antinomie을 들 수 있다. 그의 이분법은 후속세대의 학자들을 매료시켰으며 언어학의 많은 개론서에서도 이분법의 수용 및 해석에 관해서 아무런 이의도 제기되지 않았다. 그를 존경하는 사람이나 비판하는 사람 역시 이분법이 그의 가장 특색있는 연구방법으로서 그의 이원론적 사고에 대한 편중에서 야기되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 (Stankiewicz 1976, 9). 예컨대 그의 언어이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분법에 대한 이해가 결정적 요인이 된다. 이러한 이분법은 전통적으로 이미 서양의 정신사에서 자연과 예술 정신과 물질, 존재와 본질, 존재와 의식 등 개념적으로 대립되는 쌍으로¹⁸⁾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분법적 사고는 “audiatur et altera pars 상대방 측의 말 역시 들어보아야 한다”, “jedes Ding hat seine zwei Seiten 모든 사물은 양면성을 지닌다” 등 일반적인 격언이나 처세의 지혜를 표현하는 데도 사용된다. 발생심리학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심리학으로서 그 당시 학문적으로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기술심리학descriptive Psychologie에 관한 Brentano(1874)의 강의의 영향을 받고 Marty(1908), T. Masaryk (1886)은 1880년대 중반에 언어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공시적 기술이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Jakobson 1972, 164). 이러한 공시적 기술을 어원적이고 문법적 기술과의 구별에서 유도해 낸다면 이분법은 18세기 말기에 언어학에서 통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Ivanescu 1974).

18) 이분법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같이 무조건 개념적으로 대립되는 다시 말해서 이율배반 되는 개념쌍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Benveniste(1963/66, 40)에 따르면 Saussure와 관련지어 형식-실체, 개인적-사회적(언어학적), 외적-내적 등 또 다른 대립쌍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전형적인 4 개의 이분법에 종속시킬 수 있다. 이분법의 방법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원론적”이라는 의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분법이 객관성을 지니고 또한 연구 대상 그 자체에서 추출된 방법인지 또는 이론적으로 연구 대상에 적용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방법인지에 관해서 논의가 분분했다. 이분법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철학의 문제로서 이분법이 만일 존재론적, 방법론적 구조개념의 관점에서 취급된다면 보편성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Albrecht(1988, 25)에 의하면 이분법은 개념적 구별로서 동질적 현상의 두 상호보완적 고찰방법이며 주어진 영역내에서 실제로 분리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¹⁹⁾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분법은 Saussure의 언어 연구방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그가 언어 그 자체를 이원적 즉 언제나 양면적 특성을 지닌 구성물로 간주했는지 또는 이러한 구분이 오직 이론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연구대상에 부여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다시 말해서 이분법이 객관적이고 대상 그 자체에서 추출되었는지 또는 이론적으로 연구대상에 적용되었는지는 단언할 수 없다. 언어학적 관점에서 Saussure를 비판하는 학자들은 그가 이분법을 절대화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구체화했다고 비난했다. 또 한편 그가 대립쌍을 형이상학적으로 취급했다는 주장도 있다(Welke 1976, 543). Saussure의 이분법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하는 학자들은 이분법 그 자체는 언제나 분리된 상태로 허용되나 상호보충으로 간주하는 이론적 선결로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의를 제기한다. 한편 그의 옹호자들은 그의 이분법에 관한 출처를 알고 있을 경우 그것이 본질에 의한 언표가 아니라 이론적 관점으로서 상호 보완관계는 그에 의해서 규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언어현상은 언제나 상호간 상응하는 양면성을 지닌다는 Saussure(1983, 23)의 주장은 문제의 해결을 한층 더 어렵게 할 뿐이다.²⁰⁾ 그런데 그의 이러한 견해는 이분법이 연구대상 즉 언어 그 자체에 관한 언표임을 입증한다. 흥미 있는 사실은 대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관점이 존재하지 않고 반대로 관점이 대상을 창조한다는 Saussure(ibid. 9)의 주장이다. 물론 이러한 그의 주장은 연역법에 대한 요구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는 분명히 경험적 사실에 의거하지 않고 자유로이 선택된 이론적 가정의 도움으로 이상적인 연구대상을 형성하는 학문

19) Albrecht는 이분법의 구별이 대상 그 자체의 특성에서 야기된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부여된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다.

20) Saussure의 메모에 의하면 언어는 들이나 여섯의 이원성 또는 대립쌍으로 환원된다.

적 행동양식을 요구했다. 그의 이론의 주체가 되는 랑그는 이러한 이론적 구성물이다. 예컨대 랑그-빠를, 공시태-통시태 등의 대립쌍 즉 언어의 연구대상은 이론적 관점에서 창조된 구성물이다. 사물의 논리가 학문의 논리에서 생성된 셈이다.²¹⁾

위에서 논의된 관점에서 본다면 Saussure의 *Cours*에서 가설적-연역적 방법에 의거해서 언어학 정립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해서 언급한다면 기술언어학의 연구 대상은 이론적 구성물로서 구체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추론해 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체계의 정의와 더불어 내재적 언어개념이 생성되었는데 이러한 개념의 극단적 모델은 Copenhagen학파(Glossematik)에서 나타난다(Scheerer 1980, 74f.). 다음에 Saussure의 이분법적 연구방법에 관한 구체적 실례를 들어보겠다.

2.1. 랑그와 빠를

Saussure에 의하면 언어는 가치체계이며 다른 학문과는 달리 언어학의 연구대상은 미리 주어지지 않고 선택된 연구방법에 의해서 비로소 결정된다. 그의 주장과 같이 랑그²²⁾가 언어학의 출발점이 되고 또한 언어연구의 척도가 되었을 때 비로소 표면상으로 연관성이 없이 무질서한 현상이 질서정연한 이상적 연구대상으로 대두된다. 따라서 그의 구조주의 언어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랑그의 개념이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 랑그는 규칙의 체계, 언어표상의 총화이며 또한 의미와 음성영상의 결합에 의해서 구성된 언어기호다. 이러한 체계와 총화는 완전한 형식으로 개인집단이나 사회 공동체 집단의 두뇌 속에 잠재적으로 존재한다. 개인은 체계를 토대로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미리 저장된 기호에서 어떤 기호를 선택하고 조합한다. 이러한 조합은 또한 심리적-물리적 메커니즘의 도움으로 질료적으로 실현되며 개인의 사고를 표현하는데 사용된다. 랑그의 질료적으로 실현된 현상 즉 언어행위를 빠를이라 칭한다 (Saussure 1983, 23~32).²³⁾

Saussure가 랑그를 언어학의 이상적 연구대상 즉 요소와 규칙의 잠재적 체계로 간주한다면 동일한 언어공동체에 속하는 통계상으로 대표되는 많은 구성원 언어행위의

21) 이러한 사태관계가 바로 명목론 또는 관습론이라고 지칭되는 인식론적 입장이다.

22) Saussure의 개념체계인 랑그-빠를의 구별이 후에 계획되었지만(Koerner 1973, 225) 이 개념체계가 언어학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제일 먼저 논의하기로 한다.

23) Albrecht(1988, 27)에 의하면 이와 같은 정의는 Saussure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차문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Cours*의 원문에서 인용된 것이다.

총화는 빠를에 속한다. 이러한 사실에서 랑그는 대량이 아닌 소량의 언어자료에 의해 표현되며(Corneille 1976, 27) 개인의 언어행위를 토대로 해서 구성될 수 있다(Fuchs/Le Goffic 1975, 11). 또 한편 Saussure는 Cours에서 개념상으로 인간의 언어능력Langage-랑그Langue-빠를Parole을 구별했고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언어 연구대상으로서 이론적으로 구성된 랑그를 우선적으로 취급했다. 그의 언어능력에 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으며 포괄적이고 전과학적 의미로서의 언어를 뜻한다. 따라서 언어능력은 그 자체의 다양성과 부조화 때문에 언어학의 연구대상으로서 부적합하다(Saussure 1983, 25). 또한 언어능력은 경우에 따라서 인간의 일반적 언어능력, 모든 언어적 현상의 집합의 의미에서는 일반적 언어 그리고 보편성의 의미에서도 일반적 언어를 뜻한다. Saussure의 해석자중 국도의 정화주의자들은 랑그-빠를의 개념쌍은 원래 언어능력-랑그-빠를의 삼분법중 일부분이며 랑그-빠를의 이분법에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언어능력과 랑그-빠를의 관계는 기호가 씨니피에-씨니피앙의 관계에 또는 구조(체계)가 계열적-통합적 관계에 대해서 가지는 관계와 같다(Koerner 1973, 244).

Cours에서 랑그와 빠를의 구별은 엄격하며 또한 랑그-빠를은 Saussure 이론체계의 기본개념이다. 랑그-빠를을 구별함으로써 그는 1) 개인적인 것에서 사회적인 것을, 2) 부차적인 것과 다소간 우연적인 것에서 본질적인 것을 구별했다(Saussure 1983, 30). 물론 사회적 특성과 함께 체계성은 랑그의 본질적 특성이다. 이러한 랑그는 또한 어휘와 문법규칙의 평균치로서 언어학의 우선적 연구대상이며 또한 분리해서 고찰할 수 있는 정확히 음역된 대상이다(ibid. 31). 또 한편으로 Saussure(ibid. 40~43)는 랑그-빠를의 구별과 연관지어 내적 언어학과 외적 언어학을 구분했다. 전자는 체계로서 랑그와 관련되며 언어의 인종학적, 역사적, 지리적, 또는 방언적 현상에 관한 연구는 후자에 속한다.

Saussure의 이분법개념중 랑그-빠를이 가장 난해할 뿐만 아니라 그 개념의 적용 역시 통일적이 아니다. 예컨대 랑그는 개별어 또는 개별어의 상태나 모든 언어에 공통적인 체계성을 나타낸다(Godel 1957, 266). 그러나 랑그는 빠를의 현상에서만 직접 관찰될 수 있고 빠를에서 추출될 수 있기 때문에 언어학의 일차적 연구대상은 이론적 구성체다(Mańczak 1969, 171f.). 반면에 빠를은 개인적이며 서로 다른 개인의 의지나 심리적-생리적 소질을 전제로 개인적 빠를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Saussure (1983, 32)는 랑그 역시 빠를 못지 않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대상이며 두뇌 속에 내

재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그의 이러한 견해는 그의 사고과정에서 실증주의적 잔재가 잔류함을 뜻한다. 따라서 문제시되는 것은 랑그의 추상성 정도인데 그는 *Cours*에서 추상성의 정도에 관해서 분명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본래 현대언어학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순수한 형식적 언어개념을 구상했지만 한편으로는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그의 이론에는 실증주의적 색채가 놓후하다. 그는 또한 구체적 대상으로서 랑그에 위상을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²⁴⁾ 언어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일반 언어이론 정립의 목적으로 빠를을 희생시키고 랑그를 강조하여 한층 더 추상화하거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구체적 언어기술을 목적으로 빠를을 더욱 강조하고 극명하게 정의하기도 했다. Hjelmslev 와 V. Brøndal 등은 전자의 경우를 택했고 Trubetzkoy와 L. Bloomfield 등은 후자의 경우를 답습했다.

랑그의 추상화 정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그것과 연관되는 사회적 기준에 관해서 의심을 품게되었다. 예컨대 구체적으로 표상화된, 그러나 실제로는 추상적으로 개념화된 랑그를 동시에 사회적 체계로 정의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모순성이 발견된다. 비평가들은 빠를도 동등하게 사회적 체계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개인의 구체적이고 실제적 언어행위에서 상호간 관련되는 언어현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Hildenbrandt 1972, 24f.). Labov(1971, 113~116)는 어떤 임의의 개인에게서 사회적 양상을 고찰해야 하지만 (언어체계가 잠재적으로 모든 화자에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랑그의 사회적 실현 즉 빠를에서 개인적 양상을 고찰해야 함은 Saussure적 역설이라고 주장했다. 랑그와 빠를간의 개념내포의 분배가 의심을 갖게되는 정도에 따라서 랑그와 그 학문상의 이론적 우위성도 또한 그만큼 동요된다. 랑그의 존재는 물론 빠를을 통해서만이 인지된다. *Cours*에서 랑그의 극단적 개념정립에 결정적 역할을 한 Ch. Bally와 A. Sechehaye조차도 서로 상이한 랑그개념을 도입했다. 예컨대 Bally는 완전히 새로운 랑그개념을 초안하고 Sechehaye는 빠를에 이론적 우선권을 부여했다 (Scheerer 1980, 81).²⁵⁾

*Cours*에서 전개된 Saussure의 랑그-빠를 개념형성 과정을 살펴본다면 그러한 형성 과정이 얼마나 임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Cours*에서 나타난 부정확성과 내적 모순성에서 이미 랑그나 빠를중 어느 하나를 명확히 정의하거나 그 중간개념

24) Koerner(1973, 245)는 랑그를 추상적 가치체계로 또는 경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물질적 자료로 간주해야 할 것인지는 해설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을 강조했다.

25) 체계성과 추상성에 관한 랑그의 독점적 우위성이 약화되기 시작한 후에야 비로소 언어행위의 이론 전개과정에서 장애물이 제기된 셈이다.

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ibid. 85). Godel의 랑그-빠를의 존재에 관한 분석에 의하면 첫번째 강의²⁶⁾에서 빠를이 언어학의 우선적 연구대상으로 취급되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두번째와 세번째 강의에서 비로소 Cours의 기본개념이 간략하고 대립을 격화시켜 또한 불완전한 형태로 정립되었다(Koerner 1973, 221ff.).²⁷⁾ Cours의 내용과 첫 번째 강의간의 차이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Saussure가 첫번째 강의 이전에 이미 관습적이고 체계적인 랑그의 특성을 강조하고 또한 세번째 강의에서도 역시 담론 Diskurs으로서 빠를의 사회적 특성에 관해서 언급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위의 논거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서로 상이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Scheerer 1980, 86ff.);²⁸⁾

전거에 의하면 Saussure는 실제로 개인적 빠를개념으로부터 사회적 랑그개념을 구별하지 않았고 실제적-잠재적 개념과 개인적-사회적 개념의 두 기본적 개념쌍에 의거해서 교차분류 형식으로 분류했다:

그는 잠재성의(부재의, 수동적) 차원에서

- 1) 금고trésor, 위탁물dépôt, 기억력mémoire과 유사한 개념의 특성을 지닌 주간적으로 내면화된 랑그의 의미에서 개인적 랑그개념과
- 2) 사회적 결정체cristallisation sociale, 사회적 생산물produit social, 사회적 분비물sécrétion sociale과 유사한 개념의 특성을 지닌 간주간적으로 유효하고 사회적(기호학적) 관습의 의미에서의 사회적 랑그개념을 구별했다.

또 한편 그는 실체성의(출석의, 능동적) 차원에서는

- 1) 내면화되고 간주간적으로 유효한 랑그에 내포된 가능성의 주간적 실현의 의미에서의 개인적 빠를개념과

- 2) 대체로 유추와 형태론적 창조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 새로운 언어적 의미의 간주간적(담화적) 생성의 의미에서의 빠를의 사회적 개념을 구별했다(Jäger 1975, 234).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Saussure는 결코 언어이론을 통시적으로만 유효하고 내재적 관련체계의 의미에서의 랑그에 제한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또한 그 자체로 완벽한

26) Cours는 Saussure 일반언어학 강의의 노트를 제자들이 그의 사후에 편집해서 1916년에 출간한 것이다. 그의 일반언어학 강의는 세 번(1차는 1891년에, 2차는 1894년에, 3차는 1908/1909년에) 개최되었다.

27) Hiersche(1972, 9ff.)에 의하면 Saussure가 언어학의 연구대상을 빠를에서 랑그로 전환한 동기는 Durkheim의 영향에서 비롯되었다.

28) 랑그-빠를에 관한 이해는 Saussure 구조주의언어학의 개념을 파악하는데 필수적 요인이다. 때문에 그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체계로서 언어개념을 설정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의 Schleicher의 유기체이론에 대한 비판도 바로 이러한 견해를 함축하고 있다. 그 대신에 Saussure는 Humboldt와 C. Heyse에 의해서 강조된 에네레기론적 구성요소(인간의 사고행위에 의거한 체계로서의 언어)를 재도입하고 또 이것을 새로운 방법에 의거해서 이론화하려고 시도했다(ibid. 199ff.). Saussure는 Cours에서 논의되고 그 뒤에 계속되는 개념논쟁에서 한층 더 특수화된 것보다 더 복잡다양한 랑그-빠를관계를 구상했다. 원래 그는 랑그-빠를의 이분법을 설정하거나 그 개념중의 어느 하나에 학문적 우위성을 부여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매번 유효한 랑그를 언제나 필연적으로 중재하는 빠를을 바탕으로 언어적 의미의 발생사의 매체와 더불어 언어 역사성의 매체를 설정하려고 시도했다(ibid. 236).

2.2. 공시태와 통시태

19세기 말기부터 언어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기존의 연구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인식되었다. 언어의 본질을 언어 그 자체내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가 팽배했으며 기존의 연구방법과는 달리 체계와 구조에 관한 연구가 자연과학적 사고의 모델이 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19세기를 풍미했고 고립된 언어현상의 통시적 연구로부터 통일된 전체로서 언어체계의 기능을 공시적으로 고찰하려는 구조주의언어학의 기본개념이 되었다.

Saussure(1983, 114~140)에 의하면 학문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시간적 요인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것과 시간적 요인을 고려하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총체적 연구대상이 다른 학문분야로 나누어지는 것이 있다. 상이한 연구대상의 요소간 등가관계 즉 가치와 관련있는 모든 학문은 후자에 속한다. 예를 들면 경제학에서 노동과 임금, 언어학에서 음성과 의미 등 등가구조를 취급하는 학문에서는 구조요소간의 관계를 주어진 시기에서 탐구할 수도 있고 또는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각 요소의 변화를 추구할 수도 있다.²⁹⁾ 공시태는 동시성의 수평적 축으로, 그리고 통시태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수직적 축으로 표현된다. 가치체계가 개별적으로 구성되고 복잡다양할수록 두 연구방법의 구별이 더욱 절실해진다. 공시적 연구방법과 통시적 연구방법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체계의 어느 한 요소의 변화는 단지 우연적일 뿐이며 이러한 변화와 그 변화가 체계 전체를 위해서 가질 수 있는 결과와는 아무런 관계도 성립되지

29) 후자의 경우는 필연적으로 그 요소가 속하는 체계에서 그 위치가를 고려하지 않는다.

않는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언어가 항상 연속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Saussure에 의하면 화자의 의식에는 언어의 공시적 사실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시태를 통해서 언어의 체계성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Saussure는 공시적 방법의 우위성을 인정했으며 공시언어학의 연구대상은 개별어이다.³⁰⁾ 통시언어학의 연구범위는 개별어의 영역을 초월한다. 공시태와 통시태의 구별은 랑그와 빠를의 구분 다음으로 언어학의 두번째 분기점이다. 물론 랑그의 모든 통시적 요소의 근원은 빠를에 있다. 다시 말해서 랑그의 변화는 빠를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Saussure의 공시태와 통시태의 구별, 예컨대 비역사적 기술주의는 언어학의 범위를 넘어서 다른 학문분야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은 다른 어떤 학문에서도 언어학에서처럼 절대적이고 지속적 영향을 행사하지는 못했다. 언어이론과 언어분석 과정에서 공시적 연구방법에 대한 우위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었기 때문에 1970년도 초기에 언어학적 문제가 재정립되지 않으면 안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언어사를 경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적 손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공시태와 통시태의 구별에 관한 논쟁은 여러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Saussure는 Cours에서 특히 1) 통시적 사실과 공시적 사실이 본질적으로 다르고, 2) 그 때문에 상이한 두 연구방법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며, 3) 공시적 현상이 우위성을 가지며, 4) 그 결과 공시언어학이 통시언어학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대한 노력을 했다(Scheerer 1980, 89). 물론 통시태와 공시태의 구별은 내적 모순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점을 제시한다.³¹⁾ 공시태의 우위성을 인정한 것은 언어학의 발전사적 관점에서 보면 역사-비교언어학의 쇠퇴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학문이론상으로는 전체적으로 볼 때 반역사주의보다는 인간관계 개념의 위기와 더 관련이 있는 단명한 경향을 강화시켰다.³²⁾

공시태와 통시태를 구별함으로써 Saussure가 1) 언어이론적 또는 학문이론적 구별을 하려고 했는지, 2) 이러한 구별을 실제로 극복할 수 없는 현상으로 또는 중재할 수 있

30) “synchronisch공시적” 대신에 “idiosynchronisch”라고 지칭해야 마땅하며 공시적 연구방법은 현재 언어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31) Schuhardt의 Cours에 대한 서평 이후 특히 공시태와 통시태의 구별을 한층 더 정확히 하거나 언어의 공시적 및 통시적 두 차원을 통합해야 한다는 Prag학파의 주장이 대두되었다.

32) 여기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어떤 사실에 관한 단명한 경향이란 설명뿐만 아니라 기술 역사학문연구의 과제라는 견해를 의미한다.

는 것으로 간주했는지, 3) 연구과정의 필수적 진행순서로서 공시태의 우위성을 또는 절대적 특권으로서 그 우위성을 인정했는지에 관해서 많은 논쟁이 전개되었다(ibid. 92). Wartburg(1931)는 공시태와 통시태의 이론적 자율성을 인정했지만 새로운 차원에서 결합을 요구했다. 그는 통시태를 공시태의 연속으로 이해했는데 그의 이러한 견해는 언어사를 체계의 역사로 취급하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구조적 통시태의 개념과 일치한다. 그는 그 당시 이미 현대 사회언어학적 경향을 띤 역사언어학의 개척자로서 공시적 변동Variation과 통시적 변화Wandel와의 연관관계를 인정했다. 그는 구조화된 빠를의 계층을 변화의 원인으로 보았으나 또 한편 이를 초월하여 개인적 언어행위와 더불어 초개인적 힘과 거대한 역사적 현상 그리고 객관적인 정신적 유산 등과 연관지어 언어 변화를 규명하려고 했다.

공시태와 통시태에 관한 논의는 Coseriu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는 Saussure 이분법의 경직성을 완화하려고 시도했다. Coseriu(1974, 10f.)에 의하면 극복할 수 없는 상이점은 연구대상의 충위를 연구과정의 충위와 빈번히 혼동하는 데서 야기되며 이러한 이분법의 문제는 언어이론이 아니고 언어학이론에 속한다. 또한 그는 Saussure가 언어상태의 개념 속에 부동의 범주를 포함시키는 과오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언어 그 자체는 실제로 변화하기 때문에 언어의 변화와 현실계간에서가 아니라 언어의 변화와 개념간에서 모순성이 제기된다. 예전대 변화하는 언어가 실제 존재하는 구체적 언어다(ibid. 11). Coseriu는 이러한 변화를 인과관계로 보지 않고 궁극적 목적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언어는 단순히 변화의 결과가 아니라 언제나 변화하고 있는 체계다. 다시 말해서 항상 새로운 체계를 창조하는 과정으로서 언어는 또한 언어로서 계속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변화한다(ibid. 24). 그의 이러한 견해는 Humboldt의 에너지론적 언어관에서 유래되었고 이로써 그는 Saussure적 해석 즉 체계와 역사의 경직된 자가당착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Coseriu에 따르면 언어는 공시적으로 기능하고 통시적으로 형성된다. 언어의 생성은 기능하기 위해서 실현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은 이율배반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연구방법에는 비록 상이하지만 이율배반 그 자체의 극복이 포함되어 있다(ibid. 237).

의사소통 체계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불변성을 전제로 한다. Saussure와 같이 빠를에서 기호창조 행위가 아니라 기호사용 행위만을 인정한다면 필연적으로 언어변화는 다만 비체계적 방해의 요인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Saussure가 정통파의 짚은이문법학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위에서 이미 논술한 바와 같이 공시적 연구방법은 통시적 연구방법보다 중시되는데 그 이유는 전자를 통해서만이 언어의 체계성이 파악되기 때문이다. 공시태와 통시태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태관계이며 공시태와 통시태의 구별은 랑그-빠를의 이분법 다음으로 언어학의 두번째 분기점이다. 빠를에 변화요인이 배제되어 있고 또 이러한 변화는 일반적으로 수용된다면 랑그로 전환되기 때문에 랑그에 속하는 통시적인 것의 근원은 빠를에 있다.

2.3. 씨니피에와 씨니피앙³³⁾

Saussure에 의하면 언어는 기호체계다.³⁴⁾ 언어기호는 씨니피에Signifié(개념)와 씨니피앙Signifiant(청각영상)의 유의미한 음성과 개념의 연합으로 구성된 일종의 정신적 실체다. 기호학은 Saussure 언어이론의 중심사상으로서 현대 기호학의 근간을 이루며 그 특성과 특히 씨니피앙과 씨니피에의 구별은 언어학뿐만 아니라 인문과학의 연구방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전통적으로 기호에 관한 논쟁의 주요쟁점은 희랍시대의 논쟁처럼 씨니피앙과 씨니피에 즉 명칭과 사물의 관계가 자연적인가 또는 관습적인가를 규명하려는 인식론적 문제였지만 Saussure가 처음으로 언어기호가 언어학적 관점에서 단어와 사물과의 관계가 아니라 음성영상과 개념과의 결합이라는 견해를 꾀력했다. 다시 말해서 언어기호는 씨니피에와 씨니피앙의 결합이며 양자는 종이장의 양면과 같이 서로 결합되어 있어 이중 어느 한 면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들을 분리시킬 수는 없다. 사고는 전면이고 음성은 후면이기 때문에 어느 한 면만을 전달할 수는 없다. 양자는 서로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어 있으며 언어기호로서 작용하기 이전에는 하나의 형태가 없고 무질서한 덩어리로서 존재했다. 따라서 언어는 언어체계 이전에 존재했던 어떤 개념이나 음성도 포함하지 않고 체계내에서 생성된 개념적이거나 음성적 구별만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Saussure에게 기호는 두 요소의 결합으로 구성된 이중적인 것이며 또한 언어외적 실제의 대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며 언어의 관련체계내에서 언어내재적인 것이다.

33) 이 두 용어는 다른 용어와는 대조적으로 새로운 것인데 바람직하지 않은 심리적, 논리적 연합을 배제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34) 언어기호, 언어체계, 언어가치는 상호간 연관관계가 있는 이론적 차원으로서 분리해서 취급할 사항이 아니며 이러한 사항들은 Saussure의 언어학정립에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Saussure는 언어를 일종의 단순한 사물의 어휘목록 즉 명칭과 그에 대응하는 사물의 목록으로 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러한 견해는 그에 상응하는 단어 없이도 그 대상의 명백한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정하기 때문이다. 또 한편 그러한 주장은 명칭을 순수한 음성현상으로 또는 심적 현상으로 이해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명칭과 사물간의 결합이 매우 단순한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러 일으킨다. 이미 언급했듯이 언어기호는 명칭과 사물이 아니라 청각영상과 개념의 결합이다.

씨니피앙-씨니피에의 이분법은 언어학적으로나 언어철학적으로 많은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다. 두 용어가 상호 연관관계에 있는 단일현상의 양면을 표시한다면 기호의 경계를 설정하는 작업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한층 더 복잡한데 그 이유는 이러한 작업이 어느 한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서로 상응하는 영역을 고려해서만이 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호의 경계설정 문제는 다음과 같이 두 방법으로 요약되는데 Kopenhagen학파는 후에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기호의 식별 및 분절방법을 발전시켰다 (Albrecht 1988, 40f.):

- 1) 발화연결체에서 씨니피앙의 영역에서의 분류가 의미가 있는지(예를 들면 *Les-er*) 또는 의미가 없는지(예를 들면 **ab-er*)는 대체로 씨니피에를 고려해서 결정된다.
- 2) 두 개의 씨니피앙(token)이 동일한 기호를 나타내는지(type) 또는 그렇지 않는지(예를 들면 *jeder zehnte floh* - *jeder zehnte Floh* 등 동음이의어)가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경계설정의 문제는 확정된다.

이상과 같이 Saussure에 의해서 정의된 언어기호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성을 지닌다(ibid. 39):

1) 언어기호의 자의성³⁵⁾

Saussure에 의하면 음성영상과 개념의 결합은 자의적이다. 따라서 음성영상/*fvesto*/와 그 개념인 “Schwester자매”는 어떤 자연적 관계도 없다. 다소의 의성어를 제외하면 이 원칙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물론 자의성을 어떤 개인이 주어진 씨니피에에 대해서 자유스럽게 씨니피앙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그 결정은 이미 언어공동체내에서 성립되었다.

35) 언어학적이라기 보다는 언어철학적 관점에서 씨니피앙과 씨니피에의 이분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로서 기호의 자의성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2) 청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씨니피앙은 시간에 예속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선형적이다. 기호를 형성하는 요소들은 차례차례로 연속적으로 발화되기 때문에 그들은 발화연쇄체를 형성한다. 표면상으로 이 규칙에 대해서 위배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렇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강세된 음절의 경우 두 개의 의미를 지니는 단위(음절과 액센트)가 결합되어 동시에 나타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발화연쇄체내에서 강세된 음절과 비강세된 음절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Saussure의 언어이론중 가장 많이 거론된 문제는 기호 자의성의 유효성에 관한 제한성이다. 예컨대 기호의 자의성은 1) 의성어, 2) 부차적 동기부여, 또는 3) 기호의 양면간의 결합이 비편파적인 화자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제약을 받는다.³⁶⁾

기호의 자의성이 Saussure의 이론에서 어떤 중대성을 지니는가에 대한 문제는 최근 에야 비로소 Scheerer(1980, 107~119 참조)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기호의 자의성은 후기 구조주의언어학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기호론에서 자의성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기호분류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언어이론이나 언어철학적 관점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는 씨니피앙과 씨니피에의 결합이 자의적인 것과 같이 또한 음성이나 사고의 영역에서 경계설정 역시 자의적이라는 사실이다. 예컨대 모음 a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의 a만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a의 가치는 그 언어의 모음체계내에 몇 개의 모음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논리가 기호의 내용면에 적용되었을 때 그 결과는 훨씬 더 불안정하다. 어느 특정의 개별어에 소속되지 않을 경우 명명될 수 있는 세계는 의식에 불확실하게 나타난다. 개별적 씨니피앙에 있어서 사고의 모호한 영역의 구분이 비로소 명료하게 구분된 의식내용에 관한 전제조건을 마련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영역의 구분은 모든 언어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그러나 주지해야 할 사실은 한 언어단위의 가치는 씨니피앙과 씨니피에의 관계 즉 의미작용signification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씨니피앙과 씨니피에의 구조화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이다(Helbig 1973, 38ff.).

Cours에서 Saussure의 씨니피앙의 선형성에 관한 원칙 역시 임시적이고 약간의 모순적인 면을 제외하면 Hildenbrandt(1972, 43)가 Cours의 정의에 본질적으로 더 첨가할 사항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그것의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음의 영상(청각

36) 그 이유는 화자가 그 기호의 양면간의 또 다른 결합을 알지 못하여 기호를 변경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적 개념)으로서 씨니피앙은 그 자체가 시·공간적 특성을 소유할 수 없는 심적 단위이며 빠를의 실현에서 비로소 그러한 특징을 지닐 수 있다. 따라서 기호의 두 가지 특성 즉 자의성과 선형성은 서로 다른 계층에 속한다. 즉 기호의 자의성은 랑그에, 그리고 씨니피앙의 선형성은 빠를에 속한다. Frei(1972, 141)가 언급했듯이 Saussure는 랑그중 심의 이론을 빠를의 실례로서 만족해야 한다.

선형성의 개념은 Saussure에서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언어학자들에게도 선을 형성하는 요소의 병렬을 뜻하거나 또는 일차원적 특성을 나타내는 등 이중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첫번째의 경우에서 선형성은 여러 요소가 발화연쇄체의 동일한 지점에 동시에 나타날 수 없음을 뜻하지만 두번째의 경우에는 선이 평면이나 입체와 구별되는 것과 같이 선형성은 다차원성과 대조를 이룬다. 요소의 겹침이 일차원성의 원칙과 완전히 일치하는지 알 수 없다. 선형성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1) 기호론적 원리, 기호를 창조하는 체계 즉 언어 일부분의 특성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2) 언어기호를 자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의 필요한 조건과도 관련되며, 3) 또한 심리적 특성을 지니는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Scheerer 1980, 105ff.).

Saussure의 네 개의 이분법 중 여기에서 논의된 씨니피앙과 씨니피에가-가치론과 연관지어서-넓은 의미에서 구조주의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개별어성의 원리는 씨니피앙과 씨니피에의 구분을 통해서 비로소 확증되었고 또 한편 당해 관계개념의 성질과 관계없이 관계 그 자체가 학문적 고찰의 자율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고를 통해서 언어(랑그의 의미에서)에는 변별성(차이성)만이 존재한다는 Saussure의 이론은 형식적으로도 완전히 이해된다. 이러한 논제는 현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탐구하기보다는 비교를 통해서 현상이 어떻게 파악되어야 하는가를 고찰해야함을 뜻한다. 구조주의언어학의 전형적인 두 분야 즉 음운론과 구조주의적 의미론은 이러한 근본원리에 근거를 둔다(Albrecht 1988, 43).

2.4. 통합적 관계와 계열적(연상적) 관계

Saussure의 이분법 중 네번째의 개념쌍인 통합적 관계와 계열적 관계는 다른 세 이분법보다 다양한 변화를 했을 뿐만 아니라 본래의 명칭까지도 바뀌었다.³⁷⁾ 이 개념쌍

37) Saussure는 계열적 관계를 연합적 “associatif”관계라고 칭했다. 세계 4차 Copenhagen의 언어학자 대회에서 Hjelmslev가 심리주의적 경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associatif”를 일반

의 기원은 고대 서양의 연상관계Kontiguitätsbeziehung과 유사관계Ähnlichkeitsbeziehung의 잘 알려진 구별에까지 소급되는데 이러한 구별은 수사학적 비유의 가장 중요한 환유와 은유의 두 개념의 정의에 기초한다. Saussure가 그의 유고에 다른 세 이분법에 관해서 많은 문헌을 제시했지만 통합적 관계rapports syntagmatique와 연합적 관계rapports associatif에 관해서는 아무 기록도 하지 않았다(ibid. 361). 이차문헌에도 이에 관한 문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Saussure는 언어단위의 동일성에 관한 문제를 통해서 언어의 통합적 및 계열적 관계의 개념에 접근했다. 언어단위의 동일성은 발화체의 유사성에 의거하지 않는다(동음이의어 제외). 예컨대 두 번 나타난 언어단위는 질료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실현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다. 물론 동일성은 실체없이는 생각할 수 없지만 역시 형식적 특성을 지니는 요소의 기능에서도 비롯된다. 언어단위의 생성은 그 자체가 무정형인 불명료한 음성체의 조음을 통한 동시적 분절로 나타난다. 사고(개념)와 질료(음영상)의 결합은 실체가 아니고 형식을 창조한다. 생성된 언어단위는 상호간 동일성과 차이점 즉 동일성과 대립형식적 관계에만 존재한다. 예컨대 언어단위는 가치이며 언어는 단순한 가치체계일 뿐이다. 이와 같이 정의된 언어요소는 또한 어느 특정한 위치에서 부재함에도 그 의미기능을 성취할 수 있다. 예컨대 가치로서 언어단위의 규정은 영기호 존재의 가능성성을 내포한다(Scheerer 1980, 101ff.).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언어에는 다음과 같이 두 종류의 관계 즉 서로 다른 가치의 종류가 존재한다:

1) 통합적 관계 : 기호의 선형적 배열에서 언어기호는 그것이 그 주위의 것과 구별될 경우에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 언어요소(Cours에서는 단위를 의미함)는 텍스트에서 필연적으로 시간적 연속의 축에서(발화체에서) 잇달아서 연결된다. 이러한 방법의 연결을 통합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언제나 둘 또는 그 이상의 단위로 구성된다.

2) 언어단위는 텍스트의 밖에서, 화자의 기억 속에서 여러 종류의 연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공통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연합적 관계는 동일한 형태론적 부류에 속하는 단어간에 이루어진다.³⁸⁾ 예컨대 이러한 종류의 관계는 텍스트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두뇌 속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연합적 관계라고 부른다. 위에

적인 기호론적 의미의 용어인 “paradigmatisch”로 대체할 것을 제의했으며 또한 이 제안이 채택되어 그 이후로 “계열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Koerner 1973, 370).

38) 예를 들면 공통적 내용을 갖거나(enseignement, enseigner, renseigner 등) 또는 유사하게 들리는 단어 또는 무엇인가 상호간 공통적 유사성을 가진 부류의 단어가 여기에 속한다.

서 논술한 바와 같이 통합적 관계는 텍스트에 언어요소가 나타나는 관계이며 계열적 관계는 텍스트에 언어요소가 나타나지 않는 관계이다. Saussure는 연합적 계열에서는 고정된 어법만을 랑그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했다. 물론 문장은 빠롤의 현상으로 간주되었다.

대부분의 Saussure 후계자들은 통합적 관계와 계열적 관계의 구별이 음성학, 형태론, 통사론, 어휘론 등 전통적 언어기술의 분야를 응집력 있고 연구대상에 한층 더 타당한 분류방법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이 이분법에 대한 해석이나 실제적 사용에 있어서는 유럽과 미국의 구조주의나 상이한 여러 학파간에 많은 차이점이 나타난다.³⁹⁾ 이들의 상이한 해석에 관한 공통성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통합적이라는 용어는 언어요소가 상호간 연결되는 규칙과 관련되며 이 경우 또한 서로 다른 추상화의 정도가 구별된다. 그런데 계열적이라는 용어는 랑그의 모든 재고목록중에서 기호의 부분집합을 골라내는 것과 관계가 있으나 현재 이 작업에 필요한 선택의 통일적 기준은 마련되지 못했다(Albrecht 1988, 45f.).

최근 Chomsky(1968, 71)는 이 이분법을 구조주의언어학에서 언어기술의 두 기본작업인 분절과 분류로 간주했는데 이러한 해석은 Bloomfield학파의 분포주의에 토대를 둔다. 1960년대와 70년대의 초기에 변형생성문법이 세계적으로 절정을 이루었을 때 유럽 구조주의언어학의 방법론적 원칙은 잊혀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분포주의적 의미로 해석되었다. 예컨대 계열체를 분포부류Distributionsklasse와 동일시했다(Lyons 1969, 73~76 ; Bünting 1971, 36f.). Coseriu(1981, 162ff.)는 이러한 견해에 단호히 반대했다. 그에 의하면 계열체와 분포부류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통사체의 어느 확정된 위치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요소는 모두가 계열체가 아니다. 비록 계열체는 통사체의 어느 확정된 위치에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요소로 구성될 수 있지만 이러한 요소들은 다음의 예에서와 같이 바로 그 위치에서 실제로 나타남을 상호배제한다:

예1		예2	
das blonde	Mädchen	das blonde	Mädchen
das rothaarige	Mädchen	das zarte	Mädchen
das schwarzhaarige	Mädchen	das kluge	Mädchen

39) 현대언어학에서 통합적 관계와 계열적 관계와 유사한 구분으로 Verlauf(forløb)-System(Hjelmslev), structure-system(J. Firth), collocation-set(M. Halliday), opposition-contraste(A. Martinet) 등을 들 수 있다.

예1은 계열체의 경우인데 이러한 요소들은 *das blonde, rothaarige und schwarze Mädchen에서와 같이 병렬될 수 없다. 그러나 예2는 분포부류인데 그것의 요소들은 das blonde, zarte, kluge Mädchen과 같이 병렬될 수 있다. 그러나 첫번째의 경우에서 요소들이 통사체의 동일한 위치에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 역시 계열체의 정의에 아무 도움이 될 수 없다. 계열체는 오히려 특정의 표현의도와 관련하여 하나의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는 랑그에 속하는 요소들의 부류이다. 이러한 선택은 경우에 따라서는 일치, 지배 등과 같은 일종의 통사체적 요구와 관련해서 선택될 수 있으며 따라서 요소들이 예를 들면 명사의 격과 같이 통사체의 동일한 위치에 나타날 수 없는 계열체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계열체의 개념은 분포분류의 의미로 이해되는 개념으로서 Saussure의 연합적 관계와는 물론 학교문법의 계열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심리적 경향이 농후한 언어학자들 역시 후기 구조주의언어학자들과 같이 계열체의 개념이 Saussure의 연합적 관계와 별로 관련이 없음을 시사한다. Cours의 원래 이분법과 관련하여 고찰해 볼 때 이러한 계열체의 개념이 통사체적 현상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분포부류의 개념과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자명한 사실이다(Albrecht 1988, 46ff.).

3. 인문학 연구방법의 모델로서 Saussure의 구조주의언어학

Saussure 이후 언어학에서 비롯된 구조주의는 특정의 시기에, 특정의 지적 환경에서 구조주의언어학 그 자체에서보다도 타학문분야에서 인기가 더 높았다. 언어학의 구조주의는 처음에 인류학과 민족학을 거쳐 그외의 사회과학에 전파되었는데 그 신봉자들은 모든 사회적 및 문화적 현상을 기호학(후에는 의사소통론)으로 파악하려는 성향을 보였다. 구조주의적 연구방법이 언어학 이외의 다른 학문분야로 전이된 사실을 비판하려는 학자들은 구조주의적 운동이 Moskau학파와 러시아 형식주의에서 처음부터 문예학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않된다. 1950년대 말기 파리에서 시작된 “이데올로기적” 그리고 “유행의” 구조주의는 우선적으로 문학, 심리학(특히 심층심리학), 철학(학문이론) 그리고 정치학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ibid. 158). 예컨대 구조주의 의식이 성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분야는 문화과학이다. 그러나 주지해야 할 사실은 언어학의 구조주의적 모델을 다른 학문분야에 응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특히 문제시된 것은 Saussure의 언어학적 개념을 필요에 따라 수정을 가해 변경시켜 사용하는 데서 야기되는 혼란이다. 예컨대 랑그와 빠롤, 씨니

피에와 씨니피앙 등의 개념이 언어학자나 문학비평가 또는 인류학자나 심리학자에게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⁴⁰⁾ 언어학의 연구방법이 타학문의 모델이 된 것은 다음과 같은 Saussure 구조주의언어학의 기본개념이다:

- 1) 랑그와 빠롤의 구별
- 2) 기호체계로서의 언어의 규정
- 3) 공시태와 통시태의 방법론적 구별
- 4) 씨니피에와 씨니피앙의 구별

Saussure에 의하면 언어는 언어외적 사실과 실제적으로 관련이 없고 또한 직접적으로 사실을 묘사하는 기능도 없는 그 자체로서 기능하는 관련체계다. 위의 4 개의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언어가 기호체계라는 사실인데 이러한 기호는 자의적이며 자연적으로 동기가 부여되지 않았으며 씨니피앙과 씨니피에로 구성되었다. 구조주의는 철학적 사상이 되기 이전에는 분석방법에 불과했다. 분석방법 역시 다양한 양상과 사용법 때문에 논쟁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해석방법 역시 상이하다. 현재까지도 구조주의에 관한 정확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구조는 주어진 분석대상의 내부에서 논리적 응집을 형성하는 형식적 요소의 결합이고 또한 요소간의 관계라는 일반적 의미로 정의될 뿐이다. 물론 구조주의는 극명하게 정의될 수는 없지만 우선적으로 사회과학 특히 언어학의 연구방법에 가장 잘 적용될 수 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그 다음으로 구조주의적 방법은 인류학적 문제, 특히 신화분석은 물론 무의식의 구조분석, 언어형식을 지니는 조형미술과 음악, 수학에까지 적용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언어에서 와 같이 이러한 사실들의 구조분석도 가능하기 때문인데 구조주의의 근본목적은 결국 어떤 대상에 형식과 기능을 부여하는 내적 관계를 발견하는 데 있다. 넓은 의미에서 구조주의는 또한 기호학의 토대가 된다. 목적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구조주의언어학의 연구방법이 하나의 모델로서 타학문분야에 적용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그 효과 또한 동일하지는 않다. 다시 말해서 언어학의 연구방법을 무조건 타학문에 사실

40) 예를 들면 다음의 사실에서 용어사용의 난맥상을 볼 수 있다. Lefebvre는 Lévi-Strauss가 언어학의 몇 기본개념을 사회과학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의미를 지니는 최소단위인 형태소의 계층과 의미를 구별하는 최소단위인 음소의 계층을 극명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과오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은 정당하지 못하다. Lévi-Strauss는 결국 이러한 구별에서 모든 기호체계의 규정으로 확장된 특성을 발견했다.

그대로 적용한다는 말이 아니다. 이러한 적용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구조분석 방법이 하나의 원칙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과 또 한편 이러한 방법의 적용을 통해서 인간의 사고영역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임을 전제로 한다. 예컨대 문예학은 언어학, 인류학, 심리학 등으로부터 많은 것은 수용할 수 있으며 또한 그 반대의 경우도 유효하다.

4. Saussure 언어이론에 대한 평가와 비판

젊은이문법학파의 실증주의적 언어연구방법(자료중심의 원자론적 방법)을 극복하고 구조주의언어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Saussure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언어를 기초체계로 정의하고 언어학과 타학문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한 데 있다. 그의 새로운 언어이론은 특히 체계성과 무관한 젊은이문법학파의 이론에 비해서 활목할 만한 발전을 의미한다. 그는 언어를 본질적인 것과 우연적인 것, 사회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 즉 랑그와 빠를로 구분함으로써 개인적 언어행위가 아니라 랑그로서 주어진 언어의 사회적 관습의 체계를 언어의 본질로 규정했다.⁴¹⁾ 그가 개별적 언어행위의 체계성과 불변성을 산발적 언어현상의 원자론적 고찰에 의해서가 아니고 언어의 체계성의 통찰과 그리고 상이한 추상화의 계층에 기초하여 언어체계의 연관관계를 고찰하려는 목적을 통해서 입증하려는 데 그의 학문사적 가치가 있다(Helbig 1986, 61). 그는 Cours의 마지막 문장에서 언어 그 자체만이 언어학의 유일한 연구대상이라고 강조했으며 랑그 즉 언어내적 체계만을 언어학의 연구대상으로 설정했다.

Mańcz(1969, 170f.)는 Saussure의 언어이론을 1) 독창적이 아닌 것은 옳고(예를 들면 기호의 자의성), 2) 그러나 독창적인 것을 그르다(언어학 연구대상의 정의, 전통적 문법 외에 또 다른 문법이 존재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견해, 이분법적 연구방법 등)고 하였다. 현재 가장 널리 알려진 공시언어학의 주류를 이루는 구조주의언어학은 Saussure의 이론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그의 이론도 특히 커뮤니케이션-화용론적 관점에서 보면 연구대상의 범위축소 및 체계개념의 축소 등 많은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Saussure는 랑그와 빠를(내적 및 외적 언어학)의 비변증법적 구분, 언어 체계개념의 절대화 그리고 공시태와 통시태의 분리 등을 통해서 언어학의 연구대상을 축소 또는

41) Saussure에게 언어의 규칙성은 물리적, 생리적 현상인 음운법칙이 아니고 사회적 관습에 의해서 주어진 언어체계다.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언어학의 연구대상을 언어체계만으로 제한할 경우 1) 언어와 관련되는 다른 모든 현상과 언어와 관련되어 제기된 문제가 언어외적 사항으로 명시되고, 2) 언어의 심리적 양상은 물론 사회적 요인과 또한 그 역사적 발전에 관한 연구가 제외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예컨대 언어체계의 의사소통에 대한 종속성과 언어변화에 관한 인과적 해명은 물론 언어체계의 분화 및 변이형의 생성에 주요원인이 되는 사회적 요인 등이 언어의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Motsch 1974, 49f.).

Saussure에 의하면 언어학의 연구대상은 언어학이 타학문분야와 공유할 수 없고 언어학에만 고유한 기호체계의 내적 구조이고 또한 언어학은 언어학에만 특유한 방법론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물론 모든 언어는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고 그 자체의 고유한 법칙에 의해서 발전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사실은 언어학의 연구대상에는 언어체계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언어의 사회적 기능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언어학 연구대상에 관한 본질적 규명은 언어의 본질과 개념규정의 연관관계에 관한 해명에서 비롯되어야 함은 당연한 사실이다. 물론 체계라는 요인이 대단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기호체계로서 언어만이 언어학의 유일한 연구대상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호체계가 언어의 본질 즉 언어의 모든 양상을 완전히 포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언어학의 연구대상은 복합적인 것으로 언어체계는 물론 사회적 요인, 커뮤니케이션의 행위로서 언어 기호체계의 기능 등 언어의 모든 현상을 포함해야 하는데 이러한 연구대상의 확충은 물론 연구대상인 언어 그 자체의 특성에 기인한다.⁴²⁾ 다시 말해서 기호체계는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고 어떤 특정의 언어외적-사회적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 언어는 인간이 상호간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서로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인지작용) 수단(도구)이다. 예컨대 언어는 오직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 속에 존재한다(Suchland 1971, 196).

언어사의 큰 흐름을 보면 언어학자들은 언어라는 동일한 대상에 관해서 기술하고 고찰했다. 그러나 그들의 구체적 연구대상은 시대에 따라 대체로 상이하다는 사실을 발

42) 언어학 연구대상 확충의 원인이 단순히 연구대상인 언어 그 자체에 있다고 보는 견해는 너무나 단순하다. 대상Objekt이란 인간의 의식과는 무관하게 존재하며 인간의 인식과정을 통해서 반영되는 객관적 실체의 현상이다. 대상에 대한 특정한 접근은 특정의 관심과 목적을 토대로 인식과정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연구대상Gegenstand은 이러한 접근에 의해 서 중개되는 대상의 부분들이다. 예컨대 이러한 접근을 근간으로하여 학문의 연구대상이 확립된다(Hartung 1974, 79ff.).

견한다. 연구대상의 선정은 일반적으로 개개의 언어학자 자신이나 그 시대조류의 주관적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언어의 객관적 다양성 그 자체는 물론 또 한편 그 시대의 세계관(철학적 사조)에 의거해서 결정된 언어의 상이한 개념에 따라서 확정된다. 물론 언어학자들은 그들이 선정한 연구대상이 언어의 모든 현상을 포함하는 총체적 연구대상이 되게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다. 그러나 그들은 대상의 어느 한 특성만을 분리하여 이상화하고 다른 특성은 등한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의 연구대상은 언제나 제한적이었다. 예컨대 어느 학문의 연대상을 설정하는 데는 그 대상의 특성외에도 그 시대의 사회적 욕구와 철학사조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그 당시의 인식수준이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Helbig 1986, 34f.).

Saussure의 이론에 대한 어떤 평가나 비판도 그 당시 인식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사회적 욕구와 학문적 발전경향에 상응하여 그 당시에는 필연적으로 언어체계에 관한 정확하고 광범위한 지식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하에서 그의 이론의 핵심인 체계개념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언어학 연구대상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언어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ibid. 65). 물론 Saussure의 체계개념 그 자체에 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문제시되는 것은 그가 체계개념을 절대화하고 또 제한했다는 사실이다. 그의 체계개념은 젊은 이문법학파의 원자론적이고 심리적 개념의 반명제인데 그 개념 그 자체가 이미 실증주의적 철학에 빠져있고(Ružička 1971, 12f.), 바로 이러한 한계성이 체계의 일방적 절대화 즉 언어의 다른 양상의 비변증법적 분리를 야기시켰다. Saussure는 광범위한 체계개념을 언어의 기호체계에만 제한해서 사용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체계를 언어요소간의 관계로만 규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체계개념은 너무 제한적이다. Hartung (1974, 127f.)의 주장과 같이 기호체계(기호간의 관계)는 언어의 체계성중의 한 양상이며 또한 기호체계에 관한 연구는 언어에 관한 고찰방법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예컨대 의사 소통행위 역시 상호간에 그리고 소통행위 그 자체에 내재된 체계(예를 들면 기호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체계를 구성한다.⁴³⁾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Saussure가 랑그와 빠롤을 구분하고 언어학의 연구대상을 랑그로 제한함으로써 그는 특정의 대화환경에서 언어체계를 사용하는 화자 특정의 공동체내에서 화자의 언어체계를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역사적 연관관계에 귀속시키는 본질적 요인을 언어학의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가 언어학의 연구대상에서 언어

43) 정보전달성의 그리고 사회적 맥락에서 이러한 상위개념의 체계가 이해된다.

외적 사실을 제거하고 랑그 즉 내재적 언어체계만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그는 언어의 개별적 양상, 예컨대 언어체계, 내용과 표현의 형식(내용과 표현의 실체는 제외됨) 등을 절대화하고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언어연구에서 언어행위의 사회적, 심리적 및 문화적 요소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므로 Saussure의 언어이론은 Helbig(1986, 63)가 지적한 바와 같이 실증주의적 경향을 띠게된다. 따라서 인식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상화되는 추상개념을 절대화하는 한 Saussure의 이론은 변증법에 위배된다. 연구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등한시된 총체적 연관관계가 인정되고 또한 고려된다면 모든 이상화된 추상개념 역시 그 정당성을 물론 인정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모든 이상화는 결국 객관적 실체의 한층 더 포괄적 연관관계를 규명하는데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Saussure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의 이론에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언어의 개별적 양상(우선적으로 언어체계, 내용과 표현의 형식)이 절대화되었고 또한 이러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언어행위의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 요인이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의 공시태와 통시태 구분 역시 비변증법적이지만 언어학은 언어사이며 언어의 역사적 연구방법외에는 다른 어떤 과학적인 언어의 기술방법이 있을 수 없다는 젊은이문법학파의 언어 고찰방법의 명확한 극복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이전의 편파성을 새로운 편파성으로 극복한 셈이다. 실제로 공시태와 통시태는 서로 배타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연구방법이다. 왜냐하면 공시태는 통시적(시간적) 연속에서만이 위치를 가지며 통시태는 결국 공시태의 발전사적 연속이기 때문이다. 물론 Saussure의 체계에 관한 공시적 연구방법의 상대적 우위성은 체계개념에서 필연적으로 야기된다.⁴⁴⁾

이러한 언어 연구방법의 방법론적 구분은 필연적으로 체계가 구조화되었고 따라서 그 역사는 언어 개별적 요소변화의 역사뿐만 아니라 체계변화의 역사를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체계변화의 과정은 이러한 체계의 상태에 관한 기술을 통해서만이 기술될 수 있다(Motsch 1974, 57f.). 그러나 이러한 방법론적 분리와 공시태의 상대적 우위성이 Saussure에서와 같이 통시태와의 절대적 절단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Saussure는 그렇게함으로써 역사적인 것(통시태)이 체계의 인식에 본질적 영향을 줄 수

44) Saussure는 체계개념에 의거해서 공시적 연구방법의 적법성과 그 당시에 지배적인 통시적 고찰방법에 대한 우위성을 주장했다. 체계상태의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구조화된 체계는 우선적으로 그 상태와 특정의 시기에서 가능한 관점에서 연구되어야 함은 당연한 사실이다.

가 없는 완전히 독립적 차원으로 간주되었다. 만일 그렇다면 체계의 구조는 정적인 구조로 나타나고 그 내적 발전과정이 무시되거나 외적 우연성에 의존하는 현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19세기의 실증주의적-원자론적 고찰방법이 Saussure에 의해 완전히 극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다만 부분적으로 극복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언어의 개별적 현상에 대한 격리된 (일방적) 고찰방법은 Saussure의 공시태와 통시태의 변증법적 개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별적 체계의 실증주의적(또 다시 격리된) 연구방법에 의해서 대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Helbig 1986, 64).

참고 문헌

- Albrecht, J. 1988. *Europäischer Strukturalismus*. Ein forschungsgeschichtlicher Überblick, Darmstadt.
- Amirova, T./Ol'chovikov, B./Roždestvenskij, Ju. 1975. *Abriß der Geschichte der Linguistik*, ins Deutsche übersetzt von B. Meier, 1980. Leipzig.
- Arnauld, A./Lancelot, C. 1975. *The Port-Royal Grammar*, Mouton, Paris.
- Benveniste, E. 1963/66. 'Saussure après un demi-siècle', in *Benveniste*, 1966, 32–45.
- Bünting, K. 1971. *Einführung in die Linguistik*, Frankfurt a. M.
- Cassirer, E. 1945. Structuralism in Modern Linguistics, in *Word* 1, 97–120.
- Cherubim, D. 1973. Hermann Paul und die moderne Linguistik. Zur Studienausgabe von H. Pauls 'Prinzipien der Sprachgeschichte', *Zeitschr. f. Dialektologie und Linguistik* 40, 310–322.
- Chomsky, N. 1966/71. *Cartesianische Linguistik*. Ein Kapitel in der Geschichte des Rationalismus, Tübingen.
- _____. 1968. *Language and Mind*, New York.
- Christmann, H. 1972. 'Saussure und die Tradition der Sprachwissenschaft', in *Archiv für neuere Sprachen* 208, 241–255.
- _____. 1974. *Idealistische Philologie und moderne Sprachwissenschaft*, München.
- Cormeille, J. 1976. *La linguistique structurale*. Sa portée, ses limites, Paris.
- Coseriu, E. 1967. 'L'arbitraire du signe. Zur Spätgeschichte eines aristotelischen Begriffes', in *Archiv für neuere Sprachen* 204, 81–112.
- _____. 1969. 'Georg von der Gabelentz et la linguistique synchronique', in *Word* 23 (1967) 74–100 (wieder in Gabelentz, 2. Aufl., 1969).
- _____. 1974. *Synchronie, Diachronie und Geschichte: Das Problem des Sprachwandels*, München.
- _____. 1981. *Leccciones de lingüística general*, Madrid.
- _____. 1988. *Einführung in die allgemeine Sprachwissenschaft*, Tübingen.
- Doroszewski, W. 1933. 'Quelques remarques sur les rapports de la sociologie et de la linuistique. Durkheim et F. de Saussure' in *Journal de Psychologie normale et pathologique* 30, 82–91.
- Ducrot, O. 1968. *Le Structuralisme en linguistique*, Paris.

- Erlich, V. 1955/73. *Russischer Formalismus*, Frankfurt a. M.
- Frei, H. 1972. L'équivoque de al linéarité du signifiant, in *Romanica* 5.
- Fuchs, C./Le Goffic, P. 1975. *Initiation aux problème des linguistiques contemporaines*, Paris.
- Gabelentz, G. v. d. 1891. *Die Sprachwissenschaft*. ihre Aufgabe, Methoden und bisherigen Ergebnisse. Durchgesehener Nachdr. d. 2. Aufl. von 1901, hrsg. und mit einem Vorwort versehen von G. Narr und U. Petersen sowie mit einem Aufsatz von E. Coseriu, 'G. v. d. Gabelentz et la linguistique synchronique', Tübingen.
- Gambarara, D. *La bibliothèque de Ferdinand de Saussure*, in *Geneva Nouvelle série, tome 20* (1972) 319–368.
- Godel, R. 1957. *Les sources manuscrites du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de F. de Saussure*, Genf.
- _____. (Hrsg.) 1969. *A Geneva School Reader in Linuguistics*, Bloomington.
- Hartweg, W. 1974. *Sprachliche Kommunikation und Gesellschaft*, Berlin.
- Häusler, F. 1968. *Das Problem Phonetik und Phonologie bei Baudoin de Courtenay und in seiner Nachfolge*, Halle a. d. Saale.
- _____. 1976. 'Bemerkungen zur Stellung der Kazaner Linguistenschule in der Geschichte der Sprachwissenschaft', in *Zeitschrift für Phonetik, Sprachwissenschaft und Kommunikationsforschung* 29(1976), 534–538.
- Helbig, G. 1973. *Geschichte der neueren Sprachwissenschaft*, Reinbek bei Hamburg.
- _____. 1986. *Entwicklung der Sprachwissenschaft seit 1970*, Leipzig.
- Hiersche, R. 1972. *Ferdinand de Saussures langue-parole-Konzeption und sein Verhältnis zur Durkheim und von der Gabelentz*, Innsbruck.
- Hildenbrandt, E. 1972. *Versuch einer kritischen Analyse des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von Ferdinand de Saussure*, Marburg.
- Ivanescu, G. 1974. La distinction entre la linguistique descriptive et la linguistique historique au XIX^e siècle, in *Proceedings*, Bd. 1, 145–149.
- Jäger, L. 1975. *Zu einer historischen Rekonstruktion der authentischen Sprach-Idee Ferdinand de Saussures*, Diss. Düsseldorf.
- Jakobson, R. 1960/71. 'The Kazan School of Polish Linguistics and its Place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of Phonology', in *Jakobson(1971/79)*, II(*Word and language*), 394–428.

- Jakobson, R. 1972. 'Die Linguistik und ihr Verhältnis zu anderen Wissenschaften', in *Aufsätze zur Linguistik und Poetik*, hrsg. und eingeleitet v. W. Raikle, München 1974.
- Koerner, E. F. K. 1972. *Bibliographia Saussureana* 1870–1970. An annotated, classified bibliography on the background, development and actual relevance of Ferdinand de Saussure's General Theory of Language, Metuchen (N.J.).
- _____. 1973. Ferdinand de Saussure. Origin and Development of his Linguistic Thought of Language, in *Western Studies of Language*, Braunschweig.
- _____. 1975. 'European Structuralism : Early Beginnings', in Th. A. Sebeok (Hrsg.) 1975 *Current Trends in Linguistics, Vol 13 : Historiography of Linguistics*, Den Haag/Paris, 717–827.
- Koerner, 1976. *Towards a Historiography of Linguistics. 19th and 20th Century Paradigms*, in Parret, 685–718.
- Labov, W. 1971. *Das Studium der Sprache im sozialen Kontext* (1970), in Klein/Wunderlich, 111–194.
- Lohmann, J. 1967. 'Über das Verhältnis der Sprachtheorien von W. v. Humboldt, de Saussure und Trubetzkoy', in *Hamm*, 353–363.
- Lyons, J. 1969.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Cambridge.
- Mańczak, W. 1969. 'Critique du structuralisme', in *Folia Linuistica* III. 169–177.
- Motsch, W. 1974. *Zur Kritik des sprachwissenschaftlichen Strukturalismus*, Berlin.
- Oesterreicher, W. 1979. *Sprachtheorie und Theorie der Sprachwissenschaft*, Heidelberg.
- Paul, H. 1880/1975. *Prinzipien der Sprachgeschichte*, Tübingen.
- Ramischvili, G. 1970. 'Versuch einer energetischen Interpretation der Sprachsoziologie Ferdinand de Saussures', in *Spitzbardt*, 144–170.
- Rensch, K. 1966. 'Ferdinand de Saussure und Georg von der Gabelentz. Übereinstimmungen und Gemeinsamkeiten dargestellt an der Langue-Parole-Dichotomie sowie der diachronischen und synchronischen Sprachbetrachtung', in *Phonetica* 15, 32–41.
- Ružička, R. 1971. 'Überlegungen zur marxistisch-leninistischen Sprachtheorie', in *Linguistische Arbeitberichte* 4, Leipzig.
- Saussure, F. 1983.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Édition critique préparée par T. Mauro.

- Scheerer, Th. 1980. *Ferdinand de Saussure*, Darmstadt.
- Schuchardt, H. 1917. Rezension des 'Cours' von 1916, in *Literaturblatt für germanische und romanische Philologie* 38/1. 2. Sp. 1–9.
- Sljusareva, N. 1974. 'Essai de comparaison des conceptions de Ferdinand de Saussure et de Wilhelm von W. v. Humboldt', in *Amacker*, 265–276.
- Stankiewics, E. 1976. *Baudouin de Courtenay and the Foundations of Structural Linguistics*, Lisse.
- Suchland, P. 1971. 'Gesellschaftliche Funktion und gesellschaftlicher Charakter der Sprache', in *Sprachpflege*, 10.
- Wartburg, W. v. 1931/75, 'Das Ineinandergreifen von deskriptiver und historischer Sprachwissenschaft', jetzt in *Cherubim(Hrsg.)* 1975, 99–115.
- Welke, K. 1976. Zur Kritik der Sprachkonzeption Ferdinand de Saussures, in *Zeitschrift für Phonetik, Sprachwissenschaft und Kommunikationsforschung* 29, 542–544.
- Whitney, W. 1875. *Life and Growth of Language, An outline of linguistic science*. New York / London.
- _____. 1876. *Language and Its Stud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Indo-european Family of Language*.
- Zwirner, E. 1971. 'Zur Herkunft und Funktion des Begriffspaares Synchronie-Diachronie', in *Acta linguistica*, 248.

■ Zusammenfassung

Saussures Sprachtheorie und Dichotomie

Kim Youn-Han

Im 20. Jahrhundert ist die grundsätzliche Neuorientierung der Sprachwissenschaft geknüpft an den Saussureschen Strukturalismus. Sie wurde philosophisch von E. Husserl, dessen philosophischer Analyse des Zeichenbegriffs und dessen Ausschaltung des Psychologismus, und soziologisch von E. Durkheim vorbereitet. Saussure gilt in der Entwicklung der Sprachwissenschaft einerseits als Überwinder der junggrammatischen positivistischen Auffassungen, anderseits als bedeutendster Begründer des Strukturalismus. Obwohl einige seiner Ideen bereits vor ihm entwickelt worden sind, besteht sein wesentliches Verdienst in dem Versuch, die Linguistik in das damals absehbare System der Wissenschaften einzuordnen und das Verhältnis der Linguistik zu den anderen Wissenschaften zu bestimmen, sowie in seiner Forderung, die wechselseitigen Zusammenhänge sprachlicher Erscheinungen, ihren Systemcharakter in den Mittelpunkt zu stellen. Die Bedeutung Saussures wird erst voll sichtbar, wenn wir das Bild von der Lage der Sprachwissenschaft vor Saussure im Auge haben.

Die absolute Priorität der Beschreibung gegenwärtiger Sprachzustände gegenüber der Untersuchung sprachlicher Veränderungen gehört zu den wichtigsten Charakteristika der strukturalistischen Sprachwissenschaft. Wie alle wirksamen Strömungen in der Wissenschaft ist auch der Strukturalismus nicht nur begeistert begrüßt, sondern sowohl von den Traditionallisten als auch von den Überwindern streng kritisiert werden. Die Saussureschen Dichtomien und die Probleme, die sie aufwerfen, weisen so viele Berührungs punkte mit einigen zentralen Thesen oder Fragestellungen der verschiedenen strukturalistischen Schulen auf, dass sie von

manchen Sprachwissenschaftlern als gemeinstrukturalistisches Gedankengut angesehen werden.

Es ist verschiedentlich die Frage aufgeworfen, ob es sich bei den Dichtomien um sachliche, aus dem Gegenständ gewonnene, oder um theoretische, auf ihm augewandte Unterscheidungen handelt. Bei der Behandlung der vier Dichtomien (Langue-Parole, Synchronie-Diachronie, signifiant-signifié, syntagmatisch-paradigmatisch <associatif>) wird immer nach dem gleichen Schem verfahren. Die komplizierte Vorgeschichte wird allenfalls gestreift, wenn sie für die Nachwirkungen interessant ist, Entsprechendes gilt für die Entwicklung der Begriffe im Verlauf der verschiedenen Schaffensperioden Saussures.

Aus dem Systemcharakter der Sprache erwächst für Saussure die Notwendigkeit, zwischen Langue und Parole und streng zwischen synchronischer und diachronischer Sprachwissenschaft zu unterscheiden. Mit dieser Trennung von der Langue und Parole er das Wesentliche von Akzessorischen, des Sozialen vom Individuellen differenzieren. Wesentlich war für ihn das Sprachsystem als System sozialer Normen. Er sah den sozialen Charakter der Sprache(Langue) als konstitutiv an gegenüber den individuellen Sprechakten(Parole), in denen die junggrammatiker den Hauptgegenstand der Sprachwissenschaft gesehen hatten. Die Entgegenseitung von Synchronie und Diachronie (verbunden mit dem Postulat einer ausschliesslich synchronischen Betrachtungsweise) bedeutet gewiss eine Überwindung der junggrammatischen These.

Aber mit der Überwindung dieser Einseitigkeit wird auch in diesem Falle eine neue Einseitigkeit geschaffen. In der Tat hängen Synchronie und Diachronie eng miteinander zusammen, weil die Synchronie nur ein Stellenwert innerhalb des zeitlich-diachronischen Kontinuums markiert und die Diachronie letztlich eine entwicklungsgeschichtliche Abfolge von Synchronien darstellt.

Auch wenn Saussure auf diese Weise bestimmte Unzulänglichkeiten und Einseitigkeiten der junggrammatischen Schule überwinden half und eine neue Entwicklung einleitete, legte er den Grundstein für neue Einseitigkeiten. Diese Einseitigkeiten bestehen darin, dass er die relative Autonomie des Sprachsystems

verabsolutierte und damit das Sprachsystem schliesslich von seinen gesellschaftlichen Bezüge isolierte. Saussure leugnete zwar den sozialen und psychischen Charakter der Sprache nicht, aber er zog aus der Trennung von Langue und Parole die Schlussfolgerung, dass die Sprache als Zeichensystem unabhängig von der Untersuchung sozialer und gesellschaftlicher Zusammenhänge beschrieben werden könne und müsse. Die undialektische Trennung zwischen Langue und Parole, die Verabsolutierung des Systemaspekts der Sprache sowie die Isolierung des Diachronischen vom Synchronischen führen bei Saussure zu einer Verengung und Einschränkung des Gegenstandsbereichs der Sprachwissenschaft.